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낮 열두 시

(요 11:7-10)

이종윤 원로목사

나사르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함을 받으시고 즉시 베다니로 달려가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안이나 시간을 지연하고 계셨습니다. (7절). 베다니로 나사르를 살리러 가자고 말씀하셨어야 하실 예수님은 그 말씀은 하시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8절)하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9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낮 열두 시란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거니와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모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루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르를 돕기 위하여 베다니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으면서도 원수들이 있는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당시의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모든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의 시간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9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분량의 시간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분량은 아무도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완전히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시간의 길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의 수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해 하려고 하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자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용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분량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한다고 하는 핑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간을 정해 주시고 또한 정한 시간에 할 만한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루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쉬어라 하시면 그 부르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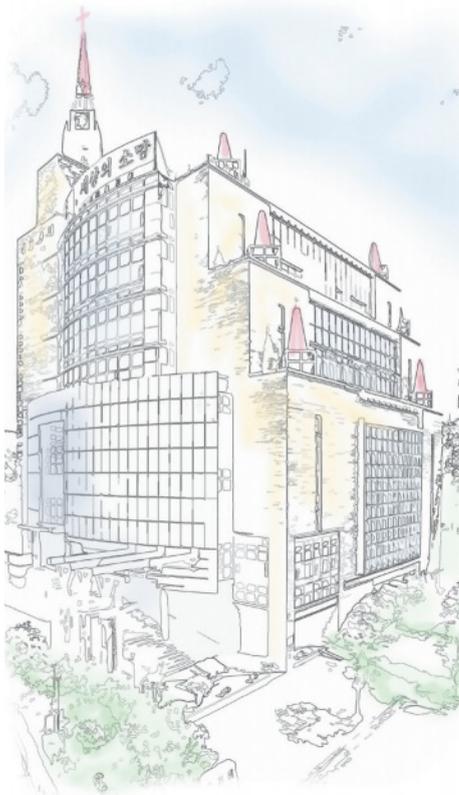
4. 시간의 효과적 사용

우리는 때사에 우선권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는데 우선권 선택을 잘못하면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이 순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가정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차서를 따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낭비를 한다면 한없이 짧은 시간이 될 뿐입니다. 물질을 낭비하는 것은 아까운 줄 알면서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의 물질을 낭비시키는 것은 미안한 줄 알면서 남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은 미안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는 말은 남의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종말이 가까움을 기억하며 자기의 죽을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 줄로 알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빛 안에서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 사명자대회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일시

10월 9일(주일)~11월 27일(주일) 새벽 05:30~06:00

특별 새벽기도회

11월 21일(월)~11월 26일(토), 새벽 05:00~06:00

강사 서범석 목사(주복교회), 송용원 목사(장신대)



교회 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2 사명자대회가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명자대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 전도하는 신앙 훈련이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성경읽기표 일정에 맞

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율기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한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자 수익금,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지난 10월 5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열린 10월 정기당회에서 9월 29일(목)~30일(금)에 진행된 "2022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의 수익금을 행사의 목적에 맞게 수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교회와 지난 폭우로 수해를 당한 지역의 이웃,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로 결의하였다.

먼저 1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남노회 도구제일교회(담임목사 이종선), 포항대송

교회(담임목사 김대훈), 경동노회 내남중앙교회(담임목사 노병용), 2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남노회 늘푸른교회(담임목사 장의환) 추가 지원 및 대치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치동 주민과 은평구 소재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 시립 은평의 마을을 각각 지원한다.

7년 만에 열린 바자에 온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 사명자대회

50일간의 사명자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충기 장로 (사명자대회 본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부르실 때 "주여!! 주의 때가 왔으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외침이 이번 50일간의 사명자대회 기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1) 매일 요일별 기도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사모하여 동참하여 간절히 기도해 힘쓰며 2) 매일 성경통독표에 따라 말씀을 읽고 3) 1인 1사랑의 실천과 전도에 힘을 쏟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대회 50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회복과 부흥

의 작은 불씨가 되어 큰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24시간 끊이지 않는 릴레이 기도에 간절함으로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더욱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추수할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무엇보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도약하는 서울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용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장하랑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2023년 목회정책협의회 10월 29일(토)

2023년을 준비하는 목회정책협의회가 10월 29일(토)에 열린다.

2023년도 교회 회복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2022 우리마을 공감 음악회 대치동 어린이를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2 우리마을 공감 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40분,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 성황리에 마친 2022년 사랑의 바자 -



이강인 장로
(2022 바자
위원장)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바자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모이게 하시어 주님의 뜻하신 바를 바자를 통해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2022년 사랑의 바자는 그야말로 7년 만에 열린 바자로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과 피할 수 없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뚫고 이렇게 모여서 물건을 팔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음꽃을 피운 것이 얼마 만인지요?

2022년 서울교회 바자회는 추석을 앞둔 미리 바자와 본 바자,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리 바자의 불고기 판매 때는 전주에 미리 불고기 덮밥을 교회 점심으로 시식토록 하였고, 차량관리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쭈쭈미 무침 판매는 쭈쭈미의 저조한 포획으로 전교인 쭈쭈미 덮밥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날 8층 엘리베이터까지 식사 줄이 이어진 것은 실로 오랫동안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본 바자회 때는 많은 분들의 기증과 기부로 이어져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중 단연 손에 꼽을 수 있는 품목은 한지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글로벌 작가 전광영 집사님의 작품 기부와 침구류였습니다. 침구류는 이번 바자회의 꽃이었고 웨민홀을 가득 채웠던 침구류는 95% 이상 판매되었으며 남은 침구류는 탈북난민교회에 기증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침구류는 단일 품목으로 바자 수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고 지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방문으로 전도의 씨앗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소망부 어르신들께서 정성껏 빚으신 만두의 맛은 이 세상 어느 누가 만들어도 나올 수 없는 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부 부장님을 중심으로 매출에 열을 올리신 사라전도회원과 소망부 회원들의 중고 장터의 판매 모습은 마치 청년 창업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2년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교회 바자 수익금은 본래의 취지대로 농어촌교회 지원, 수해피해를 입는 강남구 구민 돕기, 호산나 대학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리 바자 수익금은 이미 수해를 입은 농어촌교회 돕기로 지출된 바 있고, 여러분이 많이 사신 고추장과 각종 건강즙을 판매한 화령샘물교회와 우리나라선교단체(디아스포라)에서는 바자본부가 수익금을 전액 받지 않고 판매금 모두를 가져가시도록 하여 실

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바자에서는 서울교회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이는 오랜 고난의 터널을 순종으로 지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바자의 봉사자는 연인원 500명 정도이고 수익금의 목표는 당초 겸손하게 3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로 교회에 입금된 금액이 97,735,190원이고 화령샘물교회와 우리나라선교단체에서 수익금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억을 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교인 수 감소와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자를 위해 각 교구에서 앞장서서 애쓰신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님들과 모든 과정에서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스테반 회장님과 회원들, 권사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소망부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끝까지 솔선수범한 바자 본부의 모든 실행위원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며 지도로 수고해주신 장석남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 초등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느끼도록!

순례자는 초등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찬양 워십 댄스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여 송미령 권사(초등부 부장)와 초등부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영 선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순) 초등부 자체 워십 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송미령 권사 : 학부모님들 중 몇 분이 김보영 선생님께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순) 초등부 자체 워십 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송미령 권사 : 워십 댄스로 만들 찬양곡 한 곡을 정한 후 가사를 초등부 5개 반에 단락별로 나눠 배분하면 반학생들이 가사에 맞는 포즈를 서로 토의와 연구하여 만든 후 찬양 시간에 각 반이 담당 가사에 맞게 만든 모션을 시연하면 다른 반들이 따라하는 형식입



김보영 선생과 초등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워십 댄스로 찬양드리는 모습

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자신이 만든 율동이라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순) 초등부의 앞으로 계획은?

* 송미령 권사 : 먼저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있을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에 초등부 학생들이 그날 워십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성탄 찬양을 준비 중입니다.

순) 김보영 선생님은 초등부 찬양 사역에 가진 비전은 무엇인지요?

김보영 선생 : 찬양을 통해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배운 찬양으로 세상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한 기억이 아이들의 삶에 따뜻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순) 김보영 선생님이 가진 앞으로 찬양 사역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보영 선생 :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느끼는 찬양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순) 초등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김보영 선생 : 요즘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 화려하고 멋진 k-pop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 교회 찬양은 시시하고 멋지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찬양의 기쁨을 맛본다 (4면에 계속)

면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온전히 찬양해 보길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리며 그런 지원을 통해 활기찬 초등부가 되었다는 송미령

권사의 말씀처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연구하고 협력하여 코로나 이후의 교회학교에 대해 연구해야 할 때이다.

순례자는 사춘기 시기이거나 그 시기를 앞둔 초등부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위임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단스를 토론과 회의를 통

해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맞춰진 주파수가 되기를 소원한다.

정리 : 유은경 집사(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살롬 경로대학
가을 나들이를 마치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을 나들이 갈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처럼 웃으며 구경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 견학 갈 수 있도록 운전자로 섬겨주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사랑의 손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함께 할 수 있도록 살롬 경로대

학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살롬 경로대학

- *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 장소: 101호
- * 특별활동 반: 보드게임 반, 손뜨개 반, 위식체조 반, 미술 반
- * 부장: 김광태 장로
- * 지도: 박미라 전도사

금요기도회 재개
10월 14일(금) 오후 8시

금요기도회가 10월 14일(금) 8시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금요기도회 재개 첫날 말씀은 손달익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한편 금요기도회 찬양팀에서는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팀원을 계속 모집 중이다. 많은 성도들의 지원을 기다린다.

2022 성경암송대회

- 일시 : 11. 12(토) 일반부 본선
11. 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암송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시 암송

동정

- 식사 제공 : 김동준 집사 이신애 집사 이신영 집사 이신재 성도 (고 이강진 장로를 기리며)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살피심을 경험하며, 생각과 행동이 말씀의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미리 정한 자유키도 시간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1인1 사랑의 실천과 전도에 힘 쏟는 사명자대회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복음화된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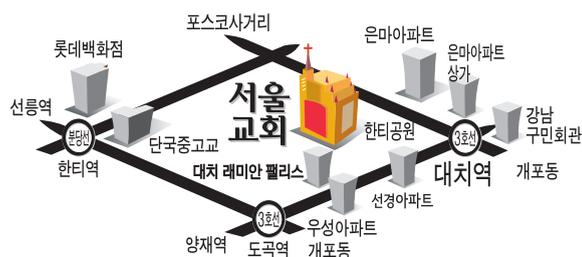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10일	월	막 4-5		아 1-8	
10월11일	화	막 6-7		사 1-7	
10월12일	수	막 8-9		사 8-14	
10월13일	목	막 10-11		사 15-26	
10월14일	금	막 12-13		사 27-33	
10월15일	토	막 14		사 34-41	
10월16일	주일	막 15-16		사 42-4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